

중흥한마당 개최 여부 불투명

학교당국 행사규모·예산지원 축소 통한 개최 바람직 학생회 협의 중단하고 규탄대회 상정등 강한 반발

동국중흥한마당 행사준비에 관한 학교당국과 학생회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않고 있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 13일 행사 개최발표이후 학교당국과 학생회는 학생회측의 기획안을 놓고 지난 16일 1차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개최취지와 공동추진에 동의했으며 학교측은 실무협의를 학생회에 위임했다.

이로써 행사 추진에 별 무리가 없는듯 보였으나 이후 학생회와 학생회간의 협의 중 학생회는 행사규모축소와 예산지원의

단체교섭 합의문 조인 노조 총회 갖고 마무리 지어

학교당국과 직원노조(위원장=장운·판재과)측은 93년도 단체교섭을 지난 21일 동국관(2층 대학원 제1회의실)에서 열린 7차교섭을 통해 마무리 했다.

노조측은 지난 15일 중앙당에서 총회를 갖고 53%의 찬성으로 단체협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결과가 아쉬웠지만 타협 협상을 진행시켜도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합의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활발한 노조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은 전년도 대비 총 7.7% 인상됐으며 이중 기본급은 3.6% 인상됐다.

한편 올해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민주적 출장선출 제도마련에 대해 "노조의 93년 중점사업으로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김윤길 직원노조 사무국장은 밝혔다.

보수

불교에서 인식하는 이 세상은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이다. 온갖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현실이 결국 고탐(苦海)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능적 속성이 연을 해내는 이 세상을 더러운 땅 즉 에토(穢土)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곧 그러하다. 세상에 대한 불교의 이같은 인식은 결코 현실도피나 염세주의를 지향해서가 아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여, 그것을 보다 개선시키려는 데 본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은 가히

정토(淨土)를 위해

고해이며 에토임을 새삼 실감케 해준다. 그 고탐를 알 수 없는 이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죄악상들은 여기를 떠나 에토가 따로 없음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철저하게 부패된 사회 속에서 그나마 자존심으로 남았어야 할 대학교실천에 나서야 한다.

불교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세계를 정토(淨土)라 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화된 국토를 말한다. 정토경전들은 그러한 국토의 즐거움과 청정함에 대한 꿈같은 묘사와 함께 그런 세계가 공간적으로 서쪽에 실재하는 것으로 설하고 있다. 그러나 정토는 공간을 초월한다. 마음의 청정함만으로도 청정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에토적 현실은 개탄하고 매도하는 것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진정 에토를 혐오하고 정토를 희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한지 그것부터 살필 일이다.

李逢春

대학별고사 치르지 않기로 내신·수학능력시험만으로 선발

9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본교 입시관리위원회는 대학별고사(본고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6일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같은 결정 사유에 대해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본고사가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게 되며, 수험생의 학습부담 및 입시관리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폐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별고사를 치르지않게 됨으로써 본교 입시요강 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교무위원회의를 통해 논의 확정된 94년 신입생모집요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신성적을 4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60%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또한 일부대학에서 논의중인 '여타의 특별전형은 후기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해 가능하다'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기입시만 치르는 본교는 실시하지않기로 했다.

한편 본교는 대학별고사를 필수, 선택으로 나눠 실시할 뜻을



공부하는 가방 조영교제수강자가 있었던 지난 24일 저녁 도서관 밖으로 내려려진 가방과 소지품들. 부족한 열람실을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석중 기자)

학생대표자회의 개최 총노선수립등 당면투쟁 결의

93학년도 상반기 정기 학생대표자 회의가 오는 30일 총노선수립, 학생회비 인상총학생회 집행부 인준등의 안건으로 소강당(학관동)에서 열린다.

정기 학생대표자 회의의 의의에 대해 이상호(부총학생회장·야간부역4)군은 "일년 사업을 확정하고 당면 투쟁을 협의해 결의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예년처럼 형식적인 학생대표자 회의가 아닌 치열한 교민을 모아 낼수 있는 시간이 될수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학생대표자 회의에는 의결안건으로 △총노선 수립 △학생회비 인상안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등이 상정돼 있으며 △교안건으로 △총학생회 1년 예산 계획 보고 △의견개선운동 보고 등이 상정돼 있다.

이밖에도 기타안건으로 모범 일꾼 발굴, 당면 투쟁결의등도 있을 예정이다.

총학생회가 제출한 총노선 기초토론 제안서에 따르면 '현시리아에 주목한 근거지 대중운동'에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자 라는 기초에 따라 동국중흥운동에 뿌리를 둔 '동국대 의의리' 운동 제언과 위대한 학생들의 삶의 문제에 근거한 새로운 학생회 구조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회비 인상은 총대의원회가 제기한 것으로 현행 5천원의 학생회비를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인상안을

경주 재학생 조사 9천1백81명

경주캠퍼스 학적과(과장=김용기)는 지난 20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93학년도 1학기 교육부 재학생 변동상황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93학년도 1학기 총재학생수는 9천1백81명으로 92학년도 2학기의 9천3백14명보다 1백3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동정

▲이봉훈(경주캠퍼스 불교학)은 지난 23일 대한불교신문사가 주최한 '한글교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한글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

경영학과 동창회 장학금 수여

경영학과 총동창회(회장=김진모·71졸)는 지난 21일 학과장실에서 93학년도 제1학기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배관기(과장)가 경영학과 재학생 3명의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이번 장학금 수혜자로 김봉환(4), 김성제(3), 김영진(30)이 선정되었다.

행정대학원 주한 루마니아대사 초청특강 '동유럽 민주화 전망' 주제

행정대학원(원장=유영진·정치외교학)에서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행정관리 특강이 오는 29일에는 주한 루마니아 우러안 이지도르 대사를 초청해 개최된다.

오후 8시부터 동국관(L101)에서 실시될 이번 특강은 '동유럽의 민주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이지도르 대사는 유창한 우리말을 구사하며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태진 교수 성지학술상 수상

본교 민태진(이과대학·화학)교수는 표고버섯의 감광 수용체를 밝힌 연구로 과학발전기공회로부터 인정돼 오는 29일 11시 호텔 소피텔 엠배서더(2층 홍보부)에서 제3회 성지학술상을 수상한다.

성지학술상은 균학을 비롯한 미생물 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학자에게 주는 상이다.

동국대학교

87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민족사학 동국대학교 21세기를 준비할 새로운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빠르지 않으나 쉬임없이, 조급함 없이 용맹정진하는 기상으로 오늘을 갈무리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성실한 동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 초빙분야 서울캠퍼스

학과	전공분야
영어영문	영어회화(외국인)
물리	반도체물리학
전자공	계측제어공학
컴퓨터공	컴퓨터네트워크
전기공	디지털 통신
국어교육	국어학(문법론 및 국어학 교육론)
교육	교육심리(측정, 통계 평가포함)
미술	조소(비구상)

경주캠퍼스

학과	전공분야
고교교과	역사고고학
불교아동	불교아동학(불교아동음악 및 율동, 아동미술)
생물	식물생리학(식물병리)
생화학	단백질화학(생체물리화학)
전산통계	수리통계학
전자계산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
산업안전공	전기안전공학
회계	회계정보시스템
정보산업	정보관리학
한의학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물리요법과, 한방외과과
의약	약리학, 예방의학, 생화학, 신경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2. 초빙인원: 각 전공별 약간명

3. 자격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서 1950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의 학력 및 특채는 예외)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단, 미술학과 및 의과대학은 예외)

4. 제출서류

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첨부),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각1통

나. 경력 및 실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명서 서류), 연구실적 목록.....각1통

다. 연구실적물(최근 4년 이내 발표된 논문 및 저서와 학위논문).....각2통(원본1부, 복제본1부)

라. 임용후 수행할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1부

마. 전문의 자격증사본(의과계 지원자에 한함).....1통

바. 불교신자일 경우는 계첩사본 또는 수계증명서.....1통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가. 1993년 5월 13일(목) 17:00까지

나. 서울 및 경주 각 캠퍼스 교무과(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6. 기타

가. 외국저명대학 출신자로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는 특채할 수 있음.

나. 이력서상단에 지방대학, 전공분야 및 진화연력치를 명기. 다. 외국어로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인 확인인한 번역문을 첨부.

라. 서류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제출기한일 도착분에 한함.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 260-3031~3034/FAX 02) 277-1274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561) 770-2031~2034/FAX 0561) 770-2001)

금융실명제란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과 증권사의 주식을 실명(實名)으로만 거래하게 한 다음 이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개인별 금융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해 이를 토대로 누진세율을 적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금융자산에 대해 누진합산과세를 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이루어 보자는 데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외형상 이처럼 단순한 목적의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못한 이유는 다른데 있다.

예금이나 주식을 사서 왜 자기 이름이 아닌 가명이나 남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借名)으로 하는가. 실명으로 들 경우 21.5%(소득세 20%, 주민세 1.5%)인 이자에 대한 세율이 가명인 경우에는 64.5%(소득세 60%, 주민세 4.5%)로 4배 가까이 오른다. 이자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식거래에서는 상장사(上場社)의 결산에 따른 배당을 받는데 이때마다 배당소득세도 이자소득세와 똑같다. 즉 실명인 경우 21.5%이지만 가명인 64.5%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도 왜 가명을 고집하는가.

한마디로 거액의 '검은돈'을 주고 받는데 쌍방이 다 자기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력 회피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 추진세금 주고 받고 뿌려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비 천문학적규모로 일컬어지는 정치자금, 대형 관공사, 은행대출, 외자, 시설도입 등에 소요되는 거액로비자금, 각종 인허가 이밖에 범죄계, 인본계 심지어 교육계까지 뇌물수가 없지 않는 것이 없는 이른바 총체적 부패사회가 가명·차명 금융거래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여기에 상속·증여 과정에서 탈세와 부의 세습, 기업지배의 대물림 등이 또 큰 요인이 되고, 이밖에 거액의 금융의 '신분보장'을 담보로 예금을 유지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이 차가명예금을 불러놓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보니 금융실명제 실시는 언제나 기득권층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어 왔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주장은 사실 정경사건이 터진 지난 82년부터 제기됐다. 당시 정경재무부장관은 '이같은 대형금융사고의 예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실명제 도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회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조기실시는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는 다분히 조작적 반대이론에 밀려 이 법의 부활을 시정시기를 86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게 됐으며 당시 전두환대통령은 끝내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

이러 집권한 노태우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실명제 시행'을 약속, 당시 조순 부총리로 하여금 실명제준비단을 만들어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 역시 90년초 이승윤 경제팀이 이전처럼 이유를 달아 도중절취되고 말았다.

이처럼 정권이 오락가락 하면서 금융실명제 실시가 지금까지 12년째 표류해 나온 것은 이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사법·행정·금융·재계 등 기득권층의 이해에 위난된

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서민자당 제2조정실장도 "부작용을 막고 혼란없는 실명제를 실시하려면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민자당에서도 3단계 실시론이 우세하다. 1~2년의 예시기간을 설정한 후 제1단계로 부작용이 적은 은행예금과 제2금융권의 유사예금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고 다시 2~3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경제에 충격요법이 금융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시간에 따라서는 전격적 처리가 불가피하고 미온적 방법보다는 속도단마식 해결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역사의 정리가 아닐까 싶다. 금융자산의 비실명제로 말미암아 경제불명의 거대한 검은돈이 국경과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관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 도입은 사실상 '회개개혁'이나 다름없다.

회개개혁을 단행하는 경우 그 시행 년·월·일을 미리 예고하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어느나라 어느경우에 있었는가. 전후 여러나라가 회개개혁을 했으나 가장 성공한 것은 전격적이고도 철저한 개혁을 단행한 경우이고 미온적인 개혁은 예외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정부 출범후 김영삼 대통령의 선도에 의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우리사회에 신선한 개혁바람을 일으켜 온 국민의 갈채속에 진행되고 있으나 방법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재산공개에 앞서 금융자산과 부동산 실명제를 먼저 실시했다면 재산의 허위 축소 공개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었고 부패세력의 전횡과 악착질을 일거에 해치울 수 있었을 것이다. 후회막급이다.

이제 정부·민자당의 금융실명제 실시 구상을 보면 부작용을 이유로 먼저 1~2년의 예시기간 경과후 은행예금부터 실명화하고 제2단계로 다시 2~3년 경과후 주식을 실명화 하고 제3단계의 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경제여건을 봐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식으로 하면 제1단계 예시기간부터 제3단계의 종합과세까지 시행하려면 적어도 4~5년이 걸린다.

금융실명제 소리가 나오자마자 많은 음성자들은 이미 도피하거나 지하로 숨어버렸다는 것이 금융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여기에 다시 4~5년의 유예기간을 두면 은행예금은 말한대로 없고 주식실명화도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최종단계의 종합과세도 민손만 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태워 버린 경제민이나 민자당에서 구상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실시방안은 언더도 '뿔고기를 다 도망치게 해놓고 그물을 치는 것'과 하등 다를이 없다. 김대통령은 수구세력의 간교한 전횡을 엄격해야 될 것이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다. 유성자금의 탈출구로서 무기명 정기채권을 마련해 놓고 어느날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시사논단

장원중

전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재정학

금융실명제 어떻게 해야 하나

표류 12년의 결산

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갖 비리·부패의 제도적 온상이 되어온 금융비실명제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는 이제 기득권층마저도 여론에 밀려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시에 관한 국민적 공론화세가 형성된 셈이다.

그런데 실시시기와 방법을 놓고 크게 두갈래로 의견이 갈라져 있다. 그 하나는 즉각 실시론이고 또 하나는 단계적 실시론이다. 후자인 단계적 실시론은 세정부도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본과제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방향을 천명하고 실시시기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오는 6월말까지 작성한 료예정인 5개년계획에 밝힐 것이라고 했는데 어딘가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중 조기실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물경제 여건이 워낙 어려워 경제가 어느정도 안정되고 불황에서 탈출하는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되

후 제2단계로 주식실명제를 실시하고 제3단계의 금융자산종합과세는 2단계실시 후 경제상황여건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하나 실명제의 정점인 비실명금융자산의 사면문제, 즉 얼마까지 과거를 묻지않느냐의 문제이다. 민자당의 서 실장이나 재무부관계자들은 예시기간이나 유예기간중에 면제조치가 없을 경우 자금의 해외도피나 지하 자금화 등이 우려된다며 자금출처조사가 실명화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탈출구로서 일부에서는 가명자산의 10%를 세금(徵收)으로 내면 자금 출처를 불문에 부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유예기간중에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투자, 중시안정자금 등에 쓰일 단기 10년 이상의 저리채권을 구입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과 같은 정부·민자당의 실명제실시방안은 한마디로 일정한 예시·유예기간 경과후 단계적 실시론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힘들게 벌어들인 강사들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거나 학교를 갓 졸업한 경우여서 강의 내용의 부실함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강의진행의 협소함

학복위가 주관하는 영어토폴 특강을 듣고 있다는 한 학생은 '태대학

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연계

성의 결여를 들고있다. 한편 친필문집으로 한부문에 치우쳐있는 현재의 특강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다.

고시반에서 만난 한 학생은 "학생 자치기구에서 실시하는 특강이 대부분 어학강좌에 치우치고 있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부분의 특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각종

면학열의 저조

학생복지위원회의 위원장 유원석(법4)은 이같은 특강의 문제점에 대해 "강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학생들의 면학열의가 부족함에도 어쩔수없는 현실"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학복위 주관의 영어토폴은 1백20여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으나 출석율은 50%를 밑도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캠퍼스가 안고있는 특강의 문제점들은 꼭 경주캠퍼스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다.

그러나 공간확보의 어려움이나 강사초빙의 문제점들을 제외하고라도 학생 참여의 유도나 교재선택권의 확대, 강사 수준제하등의 문제점들은 다양한 특강의 신설과 학교측과의 유기적 연대등의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호응도 역시 높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환 기자>

◇ 경주캠퍼스 총학·학복위주최 특강실태

해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게시판마다 특강 수강생모집 안내포스터가 붙게 되나.

그러나 이런 각종 특강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경주 캠퍼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강은 총학생활(회장·정순현·경영4)주최 컴퓨터특강과 학생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어 토폴특강, 일본어특강 및 취업대비 토폴문제 해설 특강, 취업대책국(위원장·김진오·철4)의 영어순해특강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특강들이 내용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채 연례적으로 치루기에 급급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누적되는 경주캠퍼스 특강의 문제점은 크게 △강사진의 수준 미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강좌 스펙트럼확보의 어려움등을 꼽을수 있다.

강사진 수준미흡

먼저 강사진의 수준이 낮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경주캠퍼스는 지역적 특성상 인근에서 강사를 구할수 없어 부산·대구·울산등지에서 어렵게 초빙해야 하는 불현상이 있었다. 강사진 역시

이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주까지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윤이될 내지는 늦은 오후가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강사료의 대부분을 차비로 소모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는 한 강사의 말은 강사진 초빙의 어려움을 단

특강에 비해 폭넓은 강의를 되쳐못한 채 해석중심의 진부한 내용이다"라고 시사성의 결여를 이야기하며 "교재를 사놓고도 강의내용에 실망을 느끼고 특강하는 학생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일정한기간의 특강이 교재를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끝나는 다음특강

타대학보다 학생의 다양한 요구 수렴미흡 교재선택권 참여, 강사진 향상등 내실기해야

새로운 공연문화의 시작—

연강홀이 새로운 공연문화의 막을 올립니다.

연강홀은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문화를 더 많은 이들에게— 연강홀이 새로운 공연문화로 여러분께 가깝게 다가옵니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대문로5가길 11-1 (동대문역사문화마을)

전화: 708-5001-3

사설

총체적 부패의 척결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해 왔다. 그런데 지난 2월 출범한 신정권이 국경개혁의 3대목표중 부정부패의 척결을 제1목표로 삼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우리사회의 부패구조가 총체적임을 확인하고는 국민모두가 경악과 분노를 감지 못하고 있다.

고질적인 행정부패나 관료들의 부조리는 물론 국회의원·고위공직자·기업체간부등 사회지도층 모두가 남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을 축적해 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국가백년대계를 담보하고 있기에 그래도 믿었던 교육계와 대학입시의 부정이 확인되면서 우리의 부패수위가 속히 치유되지 않으면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중증환자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부패의 원인으로서는 광범위한 부패의 먹이사슬과 가치관의 상실등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광복이후 일제에 야부했던 민족반역자들을 단죄하지 못해서 찾아야 한다.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와 부패를 조장하면서도 죄의식조차 없는 관료행태는, 일제의 앞잡이로 민족을 억압한 한인관료들을 처벌은 커녕 재용승진했던 정치권력의 결정적 오류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자 특별처벌법에 의해 민족반역자가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면 민족정기와 국민규범은 되살아 났을 것이요, 부정부패는 발붙일 수 없음을 민족앞에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오늘의 현상은 반세기 가까운 지난날의 "무혈혁명"으로 치장된 부패의 연장이며, 그나마 부패청산의 기회를 놓침으로서 씩은자가 웅장당하기는 커녕 오히려 큰소리 치며 호의호식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재검열할 수 있는 또한번의 기회를 맞고 있다. 새로운 문명정권의 등장으로 총체적 부패라는 망국병을 치유할 수 있는 "국헌혁명"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부정부패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들어 놓았고 국가발전의 암적인 존재였으며 특히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을 전회위부의 기회로 삼아 기필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이룩해야 하겠다. 이러한 부패구조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무혈혁명"으로 치장된 개혁이나 사정기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두눈을 부릅뜨고 통치권까지 철저히 감시하여 씩은 뿌리는 물론 오염된 토양까지 제거하는데 공동노력 해야만 한다.

과거 유신시대 박정권에 의한 사정정권운동이나 제5공화국 전정권에 의한 사회정화운동처럼 정당성이 없는 정권들에 의한 관제부패척결운동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름해서 그만하자"라던가 "누구를 사정하느냐"라는 등 기득권자들의 타협이나 발악적 저항을 한면으로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개혁을 통한 제도화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혁명 차원에서 철저한 응징하고 방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 모두임을 직시하여 오늘의 총체적 부패라는 위기상황으로부터 청정사회를 이끌어내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승화시키는데 함께 동참해야 하겠다. 또 다시 실패한 과거의 아픈 전철을 역사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남겨두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시대적 명제에 숙연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東國漫評

김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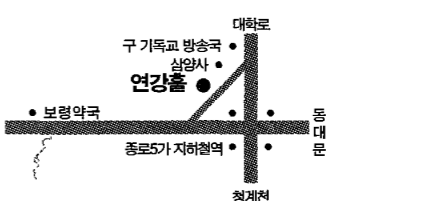
1단계: 공부!

2단계: 합격!

취업 취업 취업 취업 취업

개관 기념공연 프로그램

- 개막제: 5월1일
- 음악제: 5월2일~5월5일
 - 서울신오디에타 실내악연주회: 5월2일
 - 김득수 사물놀이와 재즈그룹 RED SUN의 만남: 5월3일
 - 가곡과 아리아의 밤: 5월4일
 - 어린이날 가족음악회: 5월5일
- 인강문화재 이매방 선생 초청무용공연: 5월6일
- 개관축하연극 "겨울 사자들"공연: 5월8일~5월30일 (출연:고두신,송재환,하상길 외)
- 권인하,이덕진,조인태 콘서트: 6월5일, 6월6일
- 한.미.일 WORLD FREE JAZZ 페스티벌 6월12일, 6월13일 (출연:김대환, LEO SMITH,아미사타 요스게 외)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대문로5가길 11-1 (동대문역사문화마을)

전화: 708-5001-3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설의 배경과 의의

백만청년학도의 염원 한총련

변화하는 학생운동의 현실적 조건 대폭 수렴 계승과 혁신의 기풍 살려 자주적 학생회 건설

전대협 해체(?) 한총련 건설

전대협 마지막 총회 및 전총련 건준위 중앙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3월 20일, 언론에 실린 기사에는 전대협이 공식 해체되고 새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건설된다고 보도되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대협이 아주 없어지는가' 하고 하고 그릴라가 있나 하고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전대협이 예전부터 확고한 조직노선으로 밝혀왔듯이 전총련으로 되면 되겠다 왜 하필이면 생소하기 짝이 없는 한총련인가 하는 의문을 피려하기도 했다.

전대협이 한총련 건설논의를 공식화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는 일이지만 그것이 실제 내용까지 담으면서 추진된 것은 92년 제6기 전대협 출범식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장관교체 실현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목표를 내걸고 싸웠던 92년이었지만 백만학도의 자주적 요구와 변화하는 학생운동의 현실적 조건은 전대협이 한총련이라는 조직적 바탕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92년도 하반기 대선투쟁기간은 대표자협의회에서 총학생회연합으로의 조직발전을 수행하려던 어떤 조직적 바탕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증적업과 구체적인 숙제를 찾아내는 단련의 시간이 되었다.

전대협 중앙의 결정이 각급 단위 학생회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앙지도부의 문제에서부터 도약하는 학생운동을 이룩하기 위한 자체의 자세와 활동방식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차곡차곡 깊이를 더해가게 되었다.

단적으로 말해 한총련은 전대협 해체의 반박에서 다시 태어난 조직이 아니다. 즉 전대협과 무관하게 생겨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이다.

전대협에서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계승하고,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서 나아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한총련이다.

전대협 6년이 쌓아온 풍부한 사례와 방법보다 더 훌륭한 교과서에서 어디에 있었는가? 전대협 6년이 걸러온 대중간부보다 더 뛰어난 활동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간부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렇듯 전대협은 오늘, 한총련의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명칭에 있어서 한총련의 문제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라는 조직명칭은 중앙위결정안으로 대의인대회 결정을 거쳐 명칭으로 확정된다.

한총련이라는 명칭이 담고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조직구성주체를 조

조직의 명칭	전국대학 대표자협의회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조직의 운영범위를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전국을 한국으로
최고의사 결정단위	전대협 총회	한총련 대의원대회	최고의사결정 단위를 단과대학 학생회장까지 10배 이상 확대
상설의사 결정단위	중앙위원회	중앙상임 위원회	중앙조직의 강화를 위해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 중앙위 신설
조직의 수준	협의회	연합회	조직의 발전의 과정에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시킴
조직의 구성원	대학생대표자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의 구성원	전체 대학생들을 회원으로 할 것을 지향하며 총학생회가 가입
조직건설 계기	87년 6월 학생 이후	92년 14대 대의원선거	14대 대선 이후 새로운 학생운동의 변화 모색과정에서 건설
중앙조직의 형태	반합법 비공개	합법 반공개 (공개물 지향)	비공개 상태였으나 조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공개를 지향
1기 출범 장소	충남	서울	수도 서울에서 최대집결지를 지향 (92년 8월)

◇도표-한총련과 전대협의 차이점 개괄

정명칭에 명기하는 것이며, 분단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한총련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의미를 담자는 것이다. 또한 전국이라는 지역구분상 애매하고 일분식 표현을 버리고 한국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담고 있다.

명칭이 관념적일 수 있으나, 생소해서 그야말로 기우이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풍기는 이미지가 아니라 백만학도가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있다.

험난한 시련의 길이었으나 전진을 거듭했던 6년의 역사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길을 전대협 백만학도는 길을 만들어 걸어왔다.

전투한 노예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의 압축을 가리며 탄생한 전대협은 백만학도에겐 자랑과 명예가 되었으며, 4천만 국민에게는 희망과 승리의 상징이었다.

87년 6월 학생의 주역들이 모여 전대협을 만들었고, 88년 조국통일투쟁과 5공비리 청산투쟁, 89년 평양축전 참가투쟁과 노태우정권 퇴진투쟁, 90년 정당당권 반대와 민자당 반대투쟁, 91년 4.5월 투쟁, 92년 장관교체 민주정부수립투쟁 등 전대협이 걸어온 뚜렷한 족적은 흐려지지 않는 빛으로 남고 있다.

전대협이 남긴 훌륭한 기풍이 있다. 아니 전대협 백만학도가 투쟁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고자한 명세가 있다.

바로 투쟁과 단결의 기풍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분명히 세우고 백만학도와 함께 구국투쟁을

일구는 전대협은 어떠한 난관과 독재정권의 탄압에도 무너지지않는 백결 불굴의 투쟁의사를 강조하였다. 전대협은 투쟁을 통해 건설되고 투쟁을 거머쥐어 조직적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그 어떠한 탄압에도 쓰러지지 않는 투쟁력을 조국에 내보낼 수 있었다. 전대협 활동이 이제 백만학도 누구나 동의하듯이 전대협은 불가능을 뚫은 투쟁의 신화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단결의 기풍이다. 사소한 것에 걸려서도, 대립하기 보다는 크게 하나같이 단결한다는 것은 전대협이 쌓은 가장 소중한 운동적 기풍이다.

백만학도가 따로 움직이는 개체가 아니라 전대협의 깃발아래 철동같이 단결하는 하나의 사상, 조직적 몸통이라는 인식이 전대협 중앙에서부터 기층 학우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철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대협 백만학도가 전대협 의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단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생명력이 바래지 않는 신념같은 것이다.

이렇게 백만학도가 일구어온 전대협 6년의 역사가 이제 한총련의 역사로 새로 이어진다. 전대협이 쌓아온 참기투쟁과 노태우정권 퇴진투쟁, 90년 정당당권 반대와 민자당 반대투쟁, 91년 4.5월 투쟁, 92년 장관교체 민주정부수립투쟁 등 전대협이 걸어온 뚜렷한 족적은 흐려지지 않는 빛으로 남고 있다.

백만청년학도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한총련

학우들의 학교생활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사회현실에 대한 책임감과 정의감

을 내뽐게하고 생활적이고, 권익차원의 문제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는 말은 요즘 학우들의 생활을 면면히 살펴보고 분석하지 않은채 내려지는 위험한 곡해에 불과하다.

물론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우들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신념이 차있다. 그 만큼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 하나하나를 계획성있고 성실하게 보내고 있다. 사회가 각박해졌기 때문이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도서관에서 느끼는 학우들의 진의를 보면 당장 이러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학우들은 청년의 정의감과 조국의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않고, 오히려 이를 자기의 삶에 훌륭하게 도입시키려는 투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학우들의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못하고 예전과 같은 사고방식에 머물러서는 한총련이 학우들을 선도하기는 커녕, 함께하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한총련은 학우들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단결한 전대협이 투쟁을 중심적인 통로로서 학우들을 변화시키고 조직화한다면 이제 한총련은 생활, 학문, 투쟁의 총체적 고민을 가지고 학우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또한 학생회는 학우들의 활동참여공간을 확대로 넓히고 말쑥한이 아닌 학우들의 목소리가 학생회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전 전대협이 학우들로 하여금 지지에서 참여를 이끌어냈다면 이제 그 참여가 참여 자체에 머물러가 아니라 참여에서 주인으로되는 과정까지 한총련이 이끌어가야 한다.

다음으로 한총련은 김영삼 새정부라는 객관적 변화요인에 무력해져서는 안된다. 자주, 민주, 통일투쟁의 총체적 원동력은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압도적 다수의 대중투쟁을 통해 민주주의운동이 전진할 수 도하는것 또한 한총련 백만학도의 어깨에 지워진 막중한 책무이다.

객관의 변화는 있을 수 있되 한총련 백만학도의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는 꺾일수도 수정될수도 없다. 조국이 자주화되지 못한 분단국가와 빚짓에 갇혀있고, 김영삼 정부의 독불장군식 개혁조치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왜곡받고 있는 현실을 한총련이 의면해서선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 현실을 백만학도의 투쟁으로 극복한다는 결의가 한총련의 바탕에 자리하고 있음을 4천만 국민앞에 내보여야 할 것이다.

김기성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선전국원>

◇ 비리의원 전원소환·파면을 위한 수도권지역 비상학생대책위 활동의 전망



◇비대위 소속 학생들은 지난 16일 서충원출범식이 열리는 중앙대에서 비리의원 전원소환·파면을 위한 선전전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다.

공직 등에 업고 투기·비리 만연 국민의 힘에 의한 부정척결 마당

'물민정부',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내건 김영삼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개혁정책으로 당선 초기 42%의 지지율에서 2개월여가 경과된 현재 90% 이상의 유례없는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2월21일의 김영삼대통령을 시작으로한 재산공개는, 22일 민주정의원들의 공개로 국민들에게 실례하는 기도와 함께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재산공개 파동으로 인해 정치적 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어지자 정부는 '공개 휘저어서 벗어나 2명의 국회의원 사퇴와 2명의 탈당, 그리고 5명에 대한 공개경고조치를 결정'하기로 하고 있으며, 뿌리부터 썩어 들어간 사회의 부패구조를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라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치유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조차도 경원대의 일사부정사건과 대입시험지 유출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부정과 부패에 심각하게 얼룩져 있음을 볼때,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나 문제가 된 몇몇 개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할 수 있다.

이에대해 지난날 26일부터 서울시

국민소환권의 입법화와 함께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의 실시를 통해 정치권 비리척결로부터 사회전반의 비리척결운동으로 확대시켜나가기 위한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투기재산 사회환원과 비리의원 소환·파면을 위한 국민소환대회 준비위(이하 준비위)'를 결성해 '1백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국민소환·파면권의 쟁취와 지역주민 서명운동을 통해 서정화(서울 용산), 남명우(수원 권선동), 조진형(인천북구)의원 소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위의 3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사실이 확실하며 그 규모 또한 가장 컸던 의원들이다. 이 중 서울 용산의 서정화 의원은 나라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내무장관이라는 공직을 이용하여 투기를 진행했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막연한데 외쳐왔던 비리의원전원소환·파면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비대위는 위와같이 비리사실이 확실하며, 중요한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비리의원들을 먼저 주민들의 힘으로 소환·파면하는 실례를 남김없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용산과 수원권선동 그리고 인천 북구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광범위한 설득작업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리의원들의 재산에 대한 실제적 조사활동 등을 벌여 왔다.

이렇듯 3월3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서명운동과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작업 그리고 '국민소환대회'와 비리의원 소환·파면을 위한 '국민대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다. 대회는 서정화, 조진형, 남명우의원에 대한 지역주민 소환대회의 개최를 광범위하게 알리려고 국민의 힘과 참여를 독려하는 '선거운'으로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 '국민소환대회'의 개최를 위한 투쟁은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와 소환·파면의 권한까지 가질 수 있게 확대시킬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민주주의를 현실로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백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국민소환권' 쟁취 투쟁은

정종현 <문과대 국문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은 듯하다.

지금까지도 경주캠퍼스 행정전반에 걸쳐 분교교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최근 부총장 인사와 관련된 경주지역내 확보투쟁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일 맞부딪치는 학교안 다리가 경주대역이란 명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대교'란 사실은 유쾌하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학교 앞 다리가 '동대교'가 아닌 경주대학교로 가는 '경대교'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경주캠퍼스를 이만큼 세련된 확보투쟁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일 맞부딪치는 학교안 다리가 경주대역이란 명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대교'란 사실은 유쾌하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한의대에 복학하는 한 학생의 푸념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생활문화개선운동과 부총장선거와 관련된 학원지주투쟁의 대의적 활동이 먼저 생활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함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평화로

경에서 상건동까지

요사이 온방골에 일기 시작하는 생활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상건동까지 걷기운동의 구호이기도 한 이 말은 이제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유행어가 됐다.

그만큼 호응도 커서 오후수업을 마치고 삼삼오오 짝을지어 자취방으로 또는 약속장소로 상건동까지 걸어가는 학생들의 긴 행렬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이 못된다.

학교를 오고가며, 늦은 밤 도서관을 나와 달빛이 반사되는 형산강을 바라보며 걷는, 때론 절편한 순간이 단련에서 벌어지기도 하는 이 다리의 정식명칭은 '경대교'이다.

지난 78년 경주대학교로 출발한 경주캠퍼스는 84년에 와서야 문리대, 법정대, 한의대로 개편, 명실상부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로 자리

잡았다. 지금의 경대교는 경주캠퍼스가 자리매김을 한 84년 4월 완공돼 예전까지 상건동에서 급장교를 돌아 학교까지 오는 불편과 경주병원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그러나 이렇게 경주캠퍼스와 '평대교' VS '동대교'

경주대학교 대교?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아 메스없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된 학교 앞 다리가 아직도 '경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리관 미련을 위해 펼쳐질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국인 영어회화 · S.I.E.코스 (각반 12명 정원 / 강사진원석 · 박사출신 미국인/12달 완성) 미국생활영어 · 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 LADO회화

ENGLISH영학 · TIME·영어순회 (독해) · TOEFL·종합영어 · 고득점TOEFL종합반 · GRE·GMAT · 문법 · 영어실용기초 VOCABULARY · AFKN정회 · TOEFL/C · 무역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연하는 H.S.회화 · 표준일본어 · NHK 일본어정회 · 라시어 · 러시아인회화 · 프랑스인회화 · 독일어 · 중국어 · 중국인회화 · 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 훈련된 최신편역 교수법 · 외국식 학습분위기 · 최신시설 · 전일제반급 · 수료증취득 · 과학적이고 정밀분석된 Placement Test를 가진 LEVEL배정 · TOEFL없이 입학가능한 WISCONSIN주립대학 PROGRAM개설

자비유학 준비반 (1월 6시간)

중문·2가 파고다공회 건너편 한빌빌 274-4000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강남·임구정역 동호대교로 한빌빌 515-4020

파고다 외곽어학원

미국 영화배우의 영어발음이 쉽게 들린다?

AFKN뉴스나 미국영화를 자막없이 영어로 들을 수 있는 학습방법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게다가, 당일 선착순 150명에는 AFKN취취요령이 담긴 과월책자와 Tape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02) 326-3100

시역원에서 만드는 WORLD NEWS 영어지침

권아진권

“ 그가 시인 이문재와 만나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

레코드점에서 만나십시오

중간기획 PRODUCTION DONG-IL

자기 일을 가진 여성, 자기 성취를 꿈꾸는 여성,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여성, 바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내게 모든 것을 가지라 한다

인생을 자기것으로 살려고 하는 한 여성이, 공감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소설!

여성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있게 하는 소설, 영국작가 메리브 허란은 이 소설 한 권으로 세계적 작가라는 명성과 함께 영국에서 '올해의 여성'에 선정되었다.

일과 사랑 그리고 가정 사치를 방해하는 90년대 직영여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 소설은 발간 1년 만에 세계 17개국으로 출간 계약되는 등 대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메리브 허란 장편소설 한기연 옮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7

출판 동진사 전화: 723-431/4 팩시: 737-3877

'베베' 무선호출기

염기때때 신청당일개통

● 서울 ● 561-8863

관리정보통신

● 서울수도권본부 ● (0343) 58-1931

기아정보통신

◇체육부의 침체와 극복방안 모색

뛰어난 선수가 경기승패 좌우

체육동문후원회 통한 재정난 극복 시급 지속적인 관심만이 선수 사기진작의 관건

대학스포츠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올들어 연세대가 대학스포츠계에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연세대는 체육부 4개종목에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우승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연세 스포츠가 올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대학에 있어서 스포츠는 대학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촉매제로써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스포츠경기장의 모습은 각대학의 응집력시현대가 되어온게 사실이다.

과거 70·80년대에도 대학스포츠는 대학 구성원의 최고인기를 유지해왔고 지금역시 마찬가지이다. 각대학마다 체육부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점을 발견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 대학의 체육부는 곧 구성원들의 화·노·애·락의 주도해온 힘동력이었다. 각종 운동회에서부터 결승전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대학구성원의 관심사로 크게 자리매김 되었다.

대학스포츠의 세력변화

그런데 최근 9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체육부의 위상자체는 변함이 없으나 그 역할이 다소 변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각대학 체육부의 세력이 이전의 춘추전국시대 양상과 다르게 '강자'는 영원히 강하고 '약자'는 영원히 약하다'는 말처럼 변하고 있는것이다. 대학체육부 세력판도의 변화요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소위 '엘리트스포츠'의 부정적 측면이 제기되면서 '사회체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각계의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소수정예의 능력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집중·육성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레 대학스포츠의 변화를 요구했고 또한 변화되어온 대학스포츠의 현주소이다. 하지만 이때 당시 제기했던 사회체육의 활성화와 검토해보면 4~5년이 경과한 지금,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적으로 엘리트스포츠가 아닌 사회체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육활성화에 대한 당위성만 앞세워 이에 대한 실질방도의 연구작업이 미흡했던 것이다.

또하나 지적할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스포츠에 있어 프로스포츠의 탄생이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세계는 엄연히 다른 선상에 존재한다. 아마추어는 순수한 반면 프로는 경제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순수함이 퇴색됐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을 것이다. 프로스포츠의 탄생은 대학스포츠에 어



◇1988년 5월7일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이장관 총장을 행개례하고 있다



◇김광선 선수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북상부는 각종 대회들 휩쓰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우와와 우와와 우리' 동대 남산 코끼리 로 끝나는 본교 응원가는 매경기마다 응원단의 힘찬 울림과 함께 동국스포츠의 결집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러모로 영향을 불러 일으켰다.

즉 고교까지의 선수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프로구단에서는 대학체육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선수 스카우트비용을 지불하면서 스카우트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러보니 70·80년대의 사정과는 달리 90년대에 이르러 각 대학의 스포츠는 그 대학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역량이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본교 체육부의 침체

본교 체육부의 역사는 다른대학과 건주어 볼 때 유구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한창 꽃피우기 시작했던 천하무적 야구부를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솟구칠 정도다. 동대문야구장을 가득메운 가운데 펼쳐진 경기

는 학내구성원들의 단결의 장이자 화합의 장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하지만 야구부의 명성은 90년대에 이르러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다. 직·간접적인 침체원인이 누적되면서 지경의 현실을 직면해 왔지만 모른다. 사실 최근 본교 야구부가 우승했다는 소식을 접하기 힘들다. 물론 80년대 당시 선수들은 지금 각프로야구단에 소속되어 곳곳 동국인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현 구성원들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교 스포츠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큰 요인은 다른 대학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속에서 대학스포츠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교 스포츠의 불꽃바람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은 전통국민의 바램일 것이다.

우수선수 확보가 지름길

여기서 동국스포츠가 침체의 늪을 극복하기위한 몇가지 문제점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재정적인 뒷받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은 대학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위한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이와같은 어려움은 다른 대학스포츠도 안고있는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학 또한 없지않았다. 특히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체육동문후원회를 결성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예로 들 수있다. 이들 대학은 체육동문후원회의 재정지원을 통한 우수한 선수 확보를 꾸준히 하고 있어 출발부터 앞서가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대학스포츠의 균형발전

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본교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은 지난해 전국 고교야구 농구대회를 올해부터 치루지 않는 것으로 결정.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대학스포츠는 재정적 뒷받침과 불기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둘째, 학내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들 수있다. 경기결과에만 너무 치중할 나머지 체육부의 사기진작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구성원들의 사고진환이 필요하다. 진정 대학스포츠가 학내구성원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선 서로간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절실하다. 경기장에서 자주 들 수 있는 구성원회 관은 '또 참패했어, 우리는 항상 패하긴만 하나, 어쩔수 없는 일이나, 이대로 가다가는 체육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등 선수들에게 힘이되는 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쏟아지는 편견은 오히려 선수들의 사기진작에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포츠명문대학으로 거듭태어나야
현재 본교 체육부는 서울캠퍼스에 축구, 야구, 농구, 복싱, 실상, 레슬링 등 6개종목이 있다. 또한 경주캠퍼스에 대외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격부가 있다. 비록 최근에는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전통적인 동국스포츠의 명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셈이다. 90년대 초반부터 침체의 수렁에 헤매고 있던 하지만 선수들의 의지가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 동국스포츠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90년대 농구부 스카우트문제를 놓고 전개중인 체육실과 농구부선수들간의 마찰은 오히려 재기추진중인 동국스포츠의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려된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선수스카우트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사실상 농구부 해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대해 다각적인 검토작업과 신중한 결정을 요하고 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가운데 매리처는 '...우와와 우와와... 우리동대 남산코끼리'의 우렁찬 합창과 기상은 지금도 여전히 동국인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학문연구에 있어서만 명문대학이 아닌 스포츠에 있어서도 명문대학이라는 자평을 하면서 용맹전진만을 고집하는 동국, 어느때보다 강한 팀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예로 들 수있다. 이들 대학은 체육동문후원회의 재정지원을 통한 우수한 선수 확보를 꾸준히 하고 있어 출발부터 앞서가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대학스포츠의 균형발전

조인환

<본사 기획위원>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④ 법과대 백봉흠 학장

고시는 자기방식 개발이 중요 학술정보의 전산망 구축돼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위해 선택과목이 많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현 1백40학점 체제에서 졸업이수학점을 늘리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

- 법과대학하면 제일먼저 고시가 떠오르는데 고시에 대한 대비는

=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계산고시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있다. 하지만 더 좋은 고시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수학생 유치기 우선순위가

- 법과대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이라면

= 학교당국이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다. 또 절대이수학점 부족으로 5년제 개편 논의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 법과대 내세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법대대 사관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동문, 교수들이 도서기증을 하는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법과대학에 필요한 연구시설립과 학생들이 학술적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전문적 회보도 필요하다.

- 교육환경개선에 중요요인

= 대학교육은 우수한 교수와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앞으로는 사회가 전산화 되어 감에따라 컴퓨터를 통한 정보전달체제도 필요하다.

현재 판례를 컴퓨터로 통해 볼 수도 있고 법조계 인사등 법조계 모든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다.

- 법학교육의 기본적 비탕이라면

= 사회정의 실현에 그 궁극적 목적을 두고있기 때문에 사회정의와 가치기준, 도덕성등에 기준이 확고히 서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 법학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 법과대의 단과대 구성과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 법과대의 특수성으로 볼때 단과대로 독립하는것은 무리가 없으며 최소한 1백20명에서 1백60명 정도가 돼야 단과대 구성상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 이경도의 학생수가 확보돼야 법과대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

- 학생정원 이외의 문제점이라면

= 법학이라는 것이 전문성, 기술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다원적 공부가 필요하다. 다원적 공부를 하기에는 절대 학점이 부족한 형편이다.

- 절대학점 부족의 극복방안은

=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수를 늘려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키울

<이석중 기자>

춘계 수계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동국의 모든 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정각원에서는 전 동국인 춘계 수계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전 동국가족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아 래

1. 전 계 사: 오복원 대중사
2. 일 시: 불기2537(1993)년 5월 17일(월) 오후 2시
3. 장 소: 정각원 대법당
4. 수계접수
 - 가)접수기간: 1993년 5월 6일~5월 17일
 - 나)접수방법: 전화 또는 소정양식에 따라 접수
 - 다)접수장소: 정각원 사무실
 - 라)연 락 처: TEL (교내)3015~6 직통)268-2314

정 각 원 장

동해 낙산학사 이용

강원도 양양군 소재 본교 동해 낙산학사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다 음

- 1.이용기간 : 연중 항시 이용
- 2.사용료
 - 가) 내부 이용자(교직원 및 재학생)
 - 학생 1인 1박 ₩1,000 (난방비:1실 ₩3,000)
 - 교직원 1실 1박 ₩7,000 (난방비:1실 ₩2,000)
 - 나) 외부 이용자(동문 및 외부인):내부 이용자의 2배
- 3.시설규모

구 분	숙 소		식당	회의실	비 고
	학 생	교직원			
규 모	10실	14실	1	1	
난방설수	3실	7실			심야전기난방
수용능력	120~200명	70명		200명	
- 3.사용 신청접수 및 문의 :
 - 서울 = 관재과 후생복지계 (교내:3083, 3084)
 - 경주 = 학생과(학생), 관재과(교직원)

관 리 처 장

제3회 D·K·B·S 임석가요제

1. 가요제 일정:
 - (1)예선일정: '93.5.2 14:00
 - 장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 (2)본선일정: 예선통과에 한하여 통보
2. 참가자격: 전국2년제이상 대학학생
3. 참가부문: 독창, 중창, 그룹
참가곡은 반드시 자작곡 또는 미발표창작곡에 한함.
4. 참 가 비: 1팀당 10,000원
(조용한:예금주 김자은 온라인번호 976-06-004676)
5. 참가신청접수기간: '93.4.1~4.30까지 접수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장소: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7. 구비서류: 참가신청서(사진부착 3x4) 약보 각1부
8. 시 상:
 - 대 상-상금20만원·상패 동 상-상품·상패
 - 금 상-상금10만원·상패 인기상-상품·상패
 - 은 상-상금5만원·상패
9. 문의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TEL(0561) 770-2470
10. 특 해: 입상자는 "포항 MBC 별이 빛나는 밤에"출연
11.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지정진료(특진)제도 안내

지정진료(특진)제도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진료병원에서 특정의사를 지정하여 진료 받고 그 댓가로 지정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
지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전문의(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 400명상이상인 병원 및 치과대학병원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이며, 지정진료는 의사면허를 받은 후 10년이상 경과된 전문의 및 치과의사(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전임강사 이상)가 담당합니다.

지정진료항목 및 지정진료비
지정진료를 행할 수 있는 항목은 진찰, 입원료중 의약품, 검사, 방사선 진단 및 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수술에 한하며, 환자는 이 적용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의료보험진료비의 50%-100%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진료병원이 정한 금액 전액을 의료보험진료비에 추가 부담합니다.
※위 적용항목은 지정진료의사가 직접 진료 또는 검사를 행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약제, 일반적진 월액 및 소변검사, 재료대 등은 지정진료항목이 아닙니다.

지정진료 신청 방법
환자가 지정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지정진료신청서'에 지정진료 의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진료과목별 지정진료의사의 명단과 진료시간표, 지정진료비에 대한 안내문은 진료비 수납창구 등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

일의 공유...남녀간 이해폭 확대

여성과 우성의 재인식

클 실는 차례

1. 여성억압의 현상적 실체 - 법률권 보장수준을 중심으로
2. 여성 스스로 보는 진정한 여성상
3. 남성이 보는 이시대의 여성상
4. 올바른 성의 실제 확립을 위하여

올바른 성의 실제 확립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니까, 남자니까에서 오는 굴레에서 벗어나 남자가 좀더 자유롭게 되고 패권되고 일그러진 형태가 아니라 중심한 관계로 새롭게 경험되는 삶. 그 문화와 사회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차례다.

우선은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으면서도 자연의 섭리, 신의 질서의 이름

력이란 있을 수 없다. 여자에게 순결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남자라면 좀 바람둥이거나 사정가를 좀 드러내었다고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등등. '애는 엄마가 키워야'라는 신화는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 수의 감소 등으로 인생의 3~40년을 자녀양육과는 무관하게 살아야만 하는 여성에게 주어진 변화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간과한



◇새로운 양성평등을 기대하려면 '남자일', '여자일'이 엄격히 구분되는 지금의 가치들을 깨뜨려 나가야만 한다.

화들 속에서 여성과 남성은 정결하게 사랑할 수 있는 상호의 존재가 아니라, 성을 파는 여자와 성을 사는 남자로, 음담패설과 기타 성적 추행, 회통과 성폭력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여성과 이런 여자에 대한 가학적

필요가 없는 최첨단 기술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남자가 대체할 수 없는 여자고유의 일로 남아있는 것은 임신, 출산과 몇개월의 수유 정도다. 그러나 이것은 '출산휴가'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것마저 유럽

평가를 받는다. 남자도 장구에 앉고 여자도 대출업무를 맡는 식으로 일이 공유되는 상황에서는 여자를 남자보다 낮은 직급, 호봉으로 묶어 둘 명분이 없게 된다. 또한 일의 공유는 남녀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혀주게 되고 그만큼 남녀관계는 풍요워진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만큼 생산적인 일이 없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생산적인 일의 의미, 창조적 기쁨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일의 분리속에서 어머니 역할은 자녀를 통한 대리 민족의 추구속에서 아이를 사랑의 이름으로 학대하는 차마바람 어머니를 낳기 십상이고 물론 최근에는 '사회주부'로 불리우는 적극적인 주부들도 출현하고 있다-아버지 역할은 돈벌이 오는 기계로 전락되기 십상이다. 거시적으로 여자는 좀 더 집착으로, 남편은 좀 더 집안으로, 그리고 일터에서는 일의 공유라는 대원칙에 의해 일의 세계가 재구성되는 변화를 추구해가는 노력없이 남남관계의 질적 변화를 기대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김정희 <서강대 여성학 강사>

투고를 환영합니다

본사 문화부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진솔한 삶이 담겨진 수필·시·공예 등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260-3491~2, (0561)770-2057

돌에 경전을 새기게 한뜻은

홍기동 <문화대 사학과 교수>



지리산 화엄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대웅전 왼쪽에 있는 각황전(覺皇殿)이다. 이곳에는 돌에 화엄경의 경문을 새긴 이른바 화엄석경(石經)이 보존되어 있다.

신라말기에 만들어진 이 석경은 임진왜란 때 파손되었는데, 현재는 파편을 모아 2백여개의 상자 속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에 불교경전을 새긴 것은 신라가 처음은 아니다.

6세기 후반 복주 무제에 의해 폐불(廢佛)이라는 피멸적인 탄압을 경험한 바 있는 중국 불교계는 당나라 때 불경 교외의 방산(房山)석벽에 불경을 조각한 일이 있다.

현재 '방산석경'으로 세계불교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석경은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불경만은 후세에 온전하게 영원히 전해야 하겠다는 불교도의 비원(悲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탄압은 커녕 국가의 전적인 비호 아래 호국(護國)불교로 융성한 발전을 거듭해 온 신라에서 석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신라의 화엄석경 제작에는 어떤 남모르는 비밀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자아내게 한다.

몇해 전 일본의 어떤 저명한 불교학자는 화엄석경이 실은 백제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기발한 견해를 내놓았다. 즉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뒤 옛 백제지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따르지 않자 신라 헌강왕은 모후(母后)의 명복을 빌다는 명복으로 백제의 석공(石工)들에게 석경을 새기도록 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신라에 대해 그토록 절치부심(切齒腐心)하던 백제의 석공들은 화엄경을 조각하는 사이에 어느덧 자신들이 품고 있던 원한을 부처의 자비로움으로 승화시켰다는 추측이다.

요컨대 석경 제작사업을 통해서 천년왕국인 신라조정의 통치비경을 읽을 수 있다는 매우 흥미있는 견해이다.

이같은 견해가 과연 옳은지 어떤 지는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화엄사장전자로 알려진 연기법사의 발원(發願)에 의해서 이보다 백여년 앞선 경덕왕 때 화엄경을 베끼는 이른바 사경(寫經)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10여년 전 세상에 공개된 이 화엄경 사경은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사경으로 지금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발문(跋文)에 의하면 이 작업은 수도인 경주사람과 평주·강성·남원·교부 등 옛 백제지역 사람들과의 기술협착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이를 만든다거나 경문을 쓰는 일을 백제지역 사람들이 맡았고, 경심(經心)을 만들거나 혹은 부처의 보살을 그리는 일, 그리고 작업의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경계(經題)를 쓰는 일은 경주 사람들이 맡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석경 제작의 숨은 의도는 백제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보려는 데 있었다는 추리가 역시 옳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현재 한국인이란 누구냐 한번쯤 읊어 들리는 것이 지역감정문제이다. 이 문제가 가히 '민국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한국의 장래는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전 국민의 공통된 의견인 듯 하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 아직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에 접할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화엄석경에 얽힌 이 신라의 고사(故事)이다.

'여자니까...' 라는 고정관념이 잠재적 억압 어머니상 만의 강조는 부성의 소외 초래

과 그 절대적 권위를 빌려 우리의 사고, 태도, 행동 등 생활 전반을 구속해 온 남남관계와 관련된 여러가지 그릇된 진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신화들이 일일이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몇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들어보자. 첫째 '여자니까... 남자니까...'의 성별 고정 관념이 있다.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는 어긋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성향, 잠재력을 억압해 왔어 야만 했다.

특히 남자는 슬퍼도 울 수 없는 정서적 불구자까지 되어야 했고, 여자는 가정일에서는 물론 실지어 가정 밖에서도 남자와 아이들의 수발을 드는 일에 제한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이 고정관념은 많은 다른 세기 고정관념을 낳았다. '어릴 때에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배배출은 필요악이다', '성폭력은 행동, 복장 등에 문제가 있는 여성 자신이 자초한 것이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

다. 이른바 '중년여성의 위기', '빈 등우리 증후군'은 이 사회가 여성에게 절대 명령으로 요구한 종족 번식의 역할에 충실했으니, 더이상 이 역할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사회가 그 여성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 데서 오는 전업주부의 전형적인 문제다. 이 신화 속에서 공동육아 시설이 없어, 방 속에서 갇혀 온종일 지내야만 하는 가정부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난한 어머니들의 아이들의 문제는 존재는 존재다. 또한 이 신화에서 가족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경쟁적인 사회로부터의 안식처가 되는 가족, 정겨운 남남관계 역시 소실이나 드러내에서나 볼 수 있는 '환상 속의 그대'에 불과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의 세계가 남녀에 따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도 여자는 집안 일, 남자는 돈 버는 일의 분리는 중산층에서조차 보편적이지 않다. 우리는 남녀의 생활학적 차이가 더이상 일의 세계에서 분리로 연결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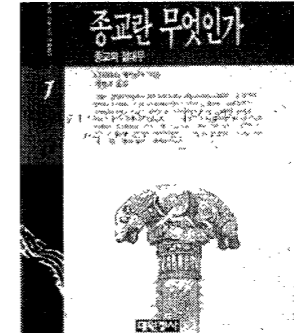
인 행위를 사소하게는 재미있어 하는 것에서부터 극단적인 성폭력까지 별다른 죄의식없이 행하는 남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성의 쾌락은 공격적, 가학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YMCA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들의 약70%가 괴팍하고 끔찍한 방법의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런 경직된, 그러나 자연의 이름으로 다뤄질만큼 깊숙히 내면화하고 있는 이런 신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경쟁적인 사회로부터의 안식처가 되는 가족, 정겨운 남남관계 역시 소실이나 드러내에서나 볼 수 있는 '환상 속의 그대'에 불과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의 세계가 남녀에 따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도 여자는 집안 일, 남자는 돈 버는 일의 분리는 중산층에서조차 보편적이지 않다. 우리는 남녀의 생활학적 차이가 더이상 일의 세계에서 분리로 연결될

에서는 남자들에게 일주일이상의 출산 휴가를 줌으로써 남녀가 공유하는 일로 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자일', '여자일'이 엄격히 분리되는 속에서는 한쪽(여자)의 가치가 덜한 일을 맡기는 식의 분업이 이루어지기 쉽고, 일단 이루어진 분업은 교체하기가 힘들다. 또한 일터에서는 일의 공유라는 대원칙에 의해 일의 세계가 재구성되는 변화를 추구해가는 노력없이 남남관계의 질적 변화를 기대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김정희 <서강대 여성학 강사>

동·서양 종교에 대한 비교 검토 "철학은 결국 종교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종교란 무엇인가

(대원정사 5천원)

교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리얼리티(실재)의 인식과 체득은 오로지 종교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주요 논지는 내향적인 시각을 갖지는 않는다. 용은 기독교의 종말사관과 합리주의적 진보주의 사관의 극

복을 공(절대무)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공의 역사관에서 종말사관과 진보사관을 동시에 극복하고 역사를 진정 역사일 수 있게 한다는 말이다. 그 주요 내용이 이 책의 '공과 시간', '공과 역사'라는 단락에 잘 나타나 있다.

역자인 본교 정병호(국민문화연구원)교수는 이 책에 대해 '지금까지 서양과 동양의 종교·철학사이에 대한 공통공간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책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서로 비교하면서 독특한 논리로 서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지어 말하면 이 책은 철학은 종교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를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책은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돼 서구에서도 널리 읽히고 있다.

<문화부>

20살 여성을 위한 에피앙 광고페이지



자기주장이 강한 신세대 Inner Wear, 비너스 에피앙

학생 · 22세 응용미술학과 3년

■ Simple & Soft 감각의 고품격 언더웨어, 비너스 에피앙

감각세대 20살, 바로 이 감각 신세대인 18세~23세 여성에 잘 맞도록 색다른 감각과 Simple함, 그리고 편안함을 그대로 입을 수 있는 비너스 에피앙. 그래서 에피앙은 20살 여성을 위해 만든 화운레이션 란제리입니다.

■ 감각, 디자인, 소재에서 개성이 더욱 돋보이는 20살 여성의 란제리, 비너스 에피앙

아웃웨어의 다양화와 함께 개성화 및 감성화에 발맞추어 20살 여성의 욕구(need)를 충족한 비너스 에피앙은 「감각과 디자인」, 그리고 「소재」에 이르기까지 한층 다양해진 패션경향에 주안점을 둔 패션러티 란제리입니다.

■ 자기만의 멋을 추구할 줄 아는 탐구하는 아름다움, 비너스 에피앙

아름다운은 추구할수록 더욱 돋보이듯이, 탐구하는 아름다움은 그 깊이가 더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20살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비너스 에피앙, 에피앙은 Inner wear를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표현할 줄 아는 신세대를 위한 화운레이션, 란제리입니다.

학생자치기구 1/4분기감사 '베그덕'

모든 단과대학생회 자료제출 시한 지키지 않아 '사업공개' 취지인식과 총대의원회 위상강화 절실

학생자치기구들의 1/4분기 감사가 대부분의 기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총대의원회에 따르면 각 감사대상기구에 공문발송,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와 총무연석회의에 감사시한 통보등을 통해 지난 17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총대의원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으나 마감시한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한 곳은 총학생회 한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대의원회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등에 대해 지난 23일자로 주의조치했으며 해당기구는 공개사업대상자를 부속했다.

이같은 감사자료 미제출로 지난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감사일정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재조정됐다.

각 자치기구별 감사일정은 불교대, 문과대, 농과대, 야간간과 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가 오는 28일에 공과대, 사과대가 29일, 이과대가 30일, 법과대는 5월3일로 제출하는 4일, 사범대는 6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감사자료 제출로 지난 23일 감사를 실시했으나 단과대 학생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전 반적인 회계제도에 대한 실질적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는 5월1일 오후 5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총대의원회 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감사에 있어서는 예년과 방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감사시안, 조직,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 실시하던 것을 예산부분은 감사이전 학생들에게 공개되던 실시하지 않을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는 감사가 예산감사에만 머물러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감사특별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또한 단과대 감사에 단위감사주체가 아닌 총대의원회 감사특별위원회 1인이 감사에 결합하도록 했다.

이것은 감사가 자체 단과대대의원회의의 감사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해설

이번 1/4분기 감사가 앞서 말했듯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감사기구인 총대의원회 감사특별위와 감사대상기구인 동아리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 및 각 단과대학생회들의 감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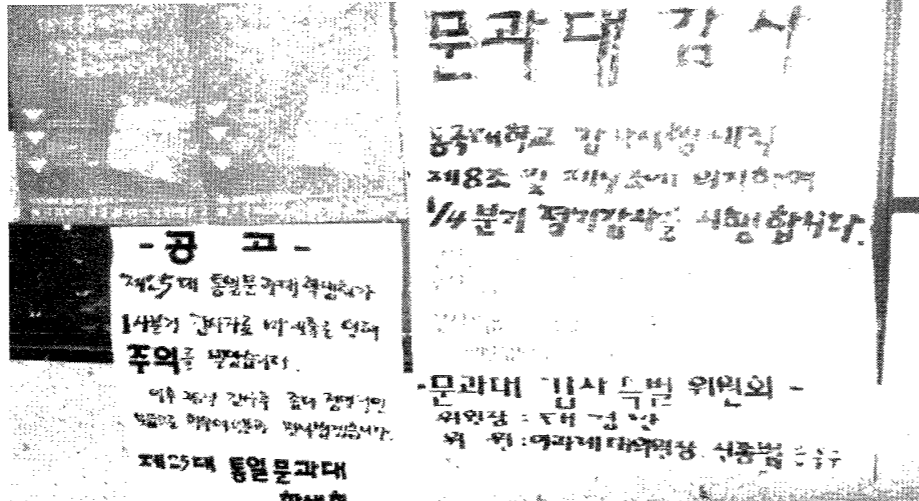
이에 총대의원회 사무국장 이승현(산공3)군은 "과감사주체와 감사주체의 인원부족과 인식공유가 되고 있지 않아 연기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예년의 경우 올해처럼 감사자료가 마감시한까지 이에 제출되지 않은 예는 드물다.

또한 벌써 1/4분기 감사가 5월중으로 연기되면서 지난해보다 한달여 늦춰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있다.

더군다나 중간고사기간동안에 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

총대의원회는 감사특별위가 꾸려질 당시 '형식적 감사의 근



○ 지난 17일로 잡혀있던 감사자료 마감시한을 지키지 않은 모든 단과대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등이 주의 조치를 받고 사과내보문을 보냈다.

절'을 기조로 감사형식의 변화 등 학생들에게 학생회사업의 공개라는 감사의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산감사로 집중돼 사업, 조직사업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감사방법의 변화를 꾀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지난 15일의 정기총회가 무산되고 안전이던 감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시작초기부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각 단과대학생회 제주체들의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큰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감사의 연기와 혼선은 학생자치기구가 사업의 철저한 대중으로의 공개라는 원칙 각인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총대의원회 위상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취재부>

동아리 연합회 열사 추모기간 설정

동아리 연합회(회장=양원식)

사범대 발전 합의문 도출

학생회 요구안 대폭 수용

실험실습비 내역공개를 요구하며 교학과 점거농성을 벌여온 사범대학생회(회장=유치진, 역교4)와 사범대학장 김장수(역사교육)교수는 지난 23일 학생들의 요구사항 실현에 합의했다.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4)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5월1일까지를 민족민주열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추모기간을 위한 검은리본 달기, 대자보 유인물 배포와 함께 비디오 상영도 할 예정이다.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범대의 경우 내역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교과 북한 김종태 대학과 편지교류

과 정기총회 통해 전문공개

역사교육과학회(회장=안진용, 역4)는 북한 김종태대학 역사교육부 역사과 학생들로부터는 편지를 지난 23일 과정기총회를 통해 공개했다.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한총련 대의원대회 열려

제1기 의장으로 김재용군 선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대의원대회가 지난25일부터 어제(27일)까지 의장선출, 출범선언 등을 안건으로 전북대에서 열렸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으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로 전체 토론·의결회의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종 문화공연은 대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대회 둘째날인 26일 전대협결사 추모제, 강령·규약 심의·확정에 이어 제1기 한총련의장으로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이 선출됐다. 또 이날 문화공연으로는 한총련 관계하는 한마당이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도 성황리

에 마쳤다.

한총련 최고이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가 어제(27일) 모든 의결안건을 처리하며 끝났으며 해서 이제 한총련을 전신인 전대협의 성과를 계승하고 중전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이는 한총련의 설립이다.

한총련은 앞으로 '생활학문, 투쟁의 공동체'로서 '자주적 학생회'의 강화, 전국적 구성을 통해 합법적인 운동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학생회 및 간부혁신을 제기하고 있다.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동양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운동은 선도투쟁이 아닌 대중운동이 돼야 한다는 한총련의 인식이다.

또 대의원체제를 강화하는 등 전대협에 비해 민주운영체제가 인정적이라는 일반적 평가가 함께 소수이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과정은 전대협때와 마찬가지로 이후 풀어나가야 할 운영상의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소요 경비와 부수되는 제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계절별 등록 학생 1인당 배정금액을 매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문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25%, 교육활동비로 75%가 사용되며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교과운영비로 80%, 교육활동비로 20%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은 △매 학기초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정에 학생대표 참여 △스튜던트협상시 합의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사범대특수시설의 난방시설 설치 △스튜던트 개방시간 연장 △시정각교육실(교육실습실)착공 △학림관 화장실 개보수 △학림관 출입문 전면 개방 △직원은 권위적 사무행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효율적 교학과 이용에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이 문제기던 실험실습비는 정규교

살의 뒤인길

제2의 인생이라 불리는 직장생활.

생의 대부분을 강단에서 후학들을 위해 정열을 쏟다 정년을 맞아 이제 제3의 인생을 살고 계신 정년퇴임교수님들. 재직시의 소중한 추억을 당시 제자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살펴보고 근황을 알아보는 글을 꾸며 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불교대학 불교학과에 재직하셨던 홍정식 선생님의 재직 기억을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의 일이다.

내가 동국의 가족이 되고 처음으로 등교를 하는 날이었다.

교정의 언발자에서 두루마기 차림의 원철한 키에 단장을 짓고 은발머리에 검정 화가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한 노교수님(?)을 뵈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대학이라는 것. 학문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과 무게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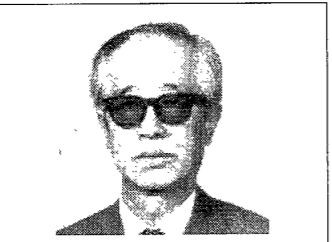
매월 후 불교학개론 시간에 우리는 그 교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 이름이 홍정식(洪正植) 선생이라는 사실과 첫인상 보다는 훨씬 짧으리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부터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캐시(선생님의 호) 선생님이 '젊은 노교수님'이나 '청년 노신사'로 통칭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코 선생님이 연세에 비해 더 젊으셨거나 젊으셨던 것이었었다는 뜻이다.

젊은 노교수님 완속된 노(老)교수님처럼 젊고 무게가 있으셨다는 뜻이다.

어찌다 바둑(당시는 교수휴게실에 바둑판이 있었다)에 심취한 나머지 강의시간을 잊으시는 일이 더러는 게 있었지만, 일단 긴 열두알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시며 강의를 시작하시게 되면 반드시 다음 강의를 지장을 가져오게 마련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는 한 주에 한번씩만 진행되었지만 미처 보지 못한 것들도 많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한 마디의 불필요한 말씀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의 강의를 우리는 통통 발라먹는 일에 비유하기도 했었거니와, 그러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빨려들게 되곤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나 학생



홍정식 <전 불교학과 교수>
<약력> 교무처장, 불교대학장, 도서관장, 불교문화 연구원장 1961. 3. 4~1983. 2. 28까지 본교 교수로 재직

들 모두가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선생님에 대한 더욱 깊은 감동과 인품의 무게를 보며 더 간직하게 되는 것은 비단 그러한 강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생님께서는 마르틴 루터의 인상과는 달리 성품이 매우 너그러우셔서 어린애의 친구가 되시고 노인에게는 노인인 친구가 되셨다. 그리하여 각기 한 곳으로 모이는 일도 선생님이 대학에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선생님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동안 두가지 종류의 사람에게만 대해서는 철저하게 멀리하셨다. 하나는 공부에 게으르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이등한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공직을 맡아 자기의 사리사욕에 활용하는 속물들이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강직성을 보셨다.

선생님께서는 이와같이 유연과 강직성을 겸비하신 당시의 성품처럼 인제나 난초와 관음죽을 즐겨 곁에 두셨거니와, 그러한 선생님을 가리켜 '죽을생남'이라 불렀다. 비유하자면 죽을생남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일단 긴 열두알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시며 강의를 시작하시게 되면 반드시 다음 강의를 지장을 가져오게 마련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는 한 주에 한번씩만 진행되었지만 미처 보지 못한 것들도 많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한 마디의 불필요한 말씀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의 강의를 우리는 통통 발라먹는 일에 비유하기도 했었거니와, 그러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빨려들게 되곤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나 학생

들 모두가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선생님에 대한 더욱 깊은 감동과 인품의 무게를 보며 더 간직하게 되는 것은 비단 그러한 강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생님께서는 마르틴 루터의 인상과는 달리 성품이 매우 너그러우셔서 어린애의 친구가 되시고 노인에게는 노인인 친구가 되셨다. 그리하여 각기 한 곳으로 모이는 일도 선생님이 대학에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선생님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동안 두가지 종류의 사람에게만 대해서는 철저하게 멀리하셨다. 하나는 공부에 게으르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이등한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공직을 맡아 자기의 사리사욕에 활용하는 속물들이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강직성을 보셨다.

선생님께서는 이와같이 유연과 강직성을 겸비하신 당시의 성품처럼 인제나 난초와 관음죽을 즐겨 곁에 두셨거니와, 그러한 선생님을 가리켜 '죽을생남'이라 불렀다. 비유하자면 죽을생남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일단 긴 열두알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시며 강의를 시작하시게 되면 반드시 다음 강의를 지장을 가져오게 마련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는 한 주에 한번씩만 진행되었지만 미처 보지 못한 것들도 많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한 마디의 불필요한 말씀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의 강의를 우리는 통통 발라먹는 일에 비유하기도 했었거니와, 그러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빨려들게 되곤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나 학생

들 모두가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선생님에 대한 더욱 깊은 감동과 인품의 무게를 보며 더 간직하게 되는 것은 비단 그러한 강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생님께서는 마르틴 루터의 인상과는 달리 성품이 매우 너그러우셔서 어린애의 친구가 되시고 노인에게는 노인인 친구가 되셨다. 그리하여 각기 한 곳으로 모이는 일도 선생님이 대학에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선생님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동안 두가지 종류의 사람에게만 대해서는 철저하게 멀리하셨다. 하나는 공부에 게으르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이등한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공직을 맡아 자기의 사리사욕에 활용하는 속물들이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강직성을 보셨다.

선생님께서는 이와같이 유연과 강직성을 겸비하신 당시의 성품처럼 인제나 난초와 관음죽을 즐겨 곁에 두셨거니와, 그러한 선생님을 가리켜 '죽을생남'이라 불렀다. 비유하자면 죽을생남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일단 긴 열두알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시며 강의를 시작하시게 되면 반드시 다음 강의를 지장을 가져오게 마련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는 한 주에 한번씩만 진행되었지만 미처 보지 못한 것들도 많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한 마디의 불필요한 말씀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의 강의를 우리는 통통 발라먹는 일에 비유하기도 했었거니와, 그러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빨려들게 되곤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나 학생

들 모두가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선생님에 대한 더욱 깊은 감동과 인품의 무게를 보며 더 간직하게 되는 것은 비단 그러한 강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생님께서는 마르틴 루터의 인상과는 달리 성품이 매우 너그러우셔서 어린애의 친구가 되시고 노인에게는 노인인 친구가 되셨다. 그리하여 각기 한 곳으로 모이는 일도 선생님이 대학에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선생님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동안 두가지 종류의 사람에게만 대해서는 철저하게 멀리하셨다. 하나는 공부에 게으르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이등한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공직을 맡아 자기의 사리사욕에 활용하는 속물들이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강직성을 보셨다.

선생님께서는 이와같이 유연과 강직성을 겸비하신 당시의 성품처럼 인제나 난초와 관음죽을 즐겨 곁에 두셨거니와, 그러한 선생님을 가리켜 '죽을생남'이라 불렀다. 비유하자면 죽을생남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일단 긴 열두알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시며 강의를 시작하시게 되면 반드시 다음 강의를 지장을 가져오게 마련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는 한 주에 한번씩만 진행되었지만 미처 보지 못한 것들도 많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한 마디의 불필요한 말씀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의 강의를 우리는 통통 발라먹는 일에 비유하기도 했었거니와, 그러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빨려들게 되곤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나 학생

들 모두가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선생님에 대한 더욱 깊은 감동과 인품의 무게를 보며 더 간직하게 되는 것은 비단 그러한 강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생님께서는 마르틴 루터의 인상과는 달리 성품이 매우 너그러우셔서 어린애의 친구가 되시고 노인에게는 노인인 친구가 되셨다. 그리하여 각기 한 곳으로 모이는 일도 선생님이 대학에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선생님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동안 두가지 종류의 사람에게만 대해서는 철저하게 멀리하셨다. 하나는 공부에 게으르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이등한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공직을 맡아 자기의 사리사욕에 활용하는 속물들이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강직성을 보셨다.

문학단신

공연 안내

◇사리의 법정...극단 동성회에서는 얼마전 사회를 떠돌아다니며 만들어낸 현실교수의 '들거는 사랑'에 대한 재판을 회화화하여 무대에 올린다.

◇이련의 재판과정을 토대로 '사리의 법정'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성 의식, 몰랐던 성의 가치 등의 의미를 부여하여 향상화한 작품.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오후 7시30분 아카데미 연극 소극장. 747-4900

◇우리 아이들의 나라...한국 음악 연구소는 참교육을 외치며 부정과 비리에 맞서다 해킨된 교사들과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이 직접 쓴 시편들을 노래 연극과 함께 낭송하는 시낭송 공연을 갖는다.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오후 7시30분. 미도과 백화점 상계지점 내 메트로 홀. 762-3936

◇YS는 못말려...우리나라 최초로 현지 대통령을 소재로 엮은 본격적인 정치 풍자극. 그동안 구절돼 온 정치유머에서 한걸음 벗어난 새로운 정치 패러디의 장르 확립과 함께 최근의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에 이르는 민간한 시대 분위기를 담고 있다. <나래미디어> 4천원

◇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 1, 2...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어온 철학에서 사상의 원수를 꺼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독자적인 인간관계 철학을 음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도서출판사> 6천원

◇권력파 이론...이 책은 한국 언론이 정치적 중립을 초래한 주범임을 고발하며 양비론을 통한 정치허무주의의 조장과 교묘한 편파 왜곡보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회복할 필요 언론의 윤리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강준만 지음. <학인사> 6천원

◇러시아 문학의 이해...85년에 창설된 한국출판사 학회가 90년과 91년에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았다. 석영중의 지음. <민들레> 6천원

◇새로 나온 책

◇YS는 못말려...우리나라 최초로 현지 대통령을 소재로 엮은 본격적인 정치 풍자극. 그동안 구절돼 온 정치유머에서 한걸음 벗어난 새로운 정치 패러디의 장르 확립과 함께 최근의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에 이르는 민간한 시대 분위기를 담고 있다. <나래미디어> 4천원

◇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 1, 2...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어온 철학에서 사상의 원수를 꺼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독자적인 인간관계 철학을 음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도서출판사> 6천원

◇권력파 이론...이 책은 한국 언론이 정치적 중립을 초래한 주범임을 고발하며 양비론을 통한 정치허무주의의 조장과 교묘한 편파 왜곡보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회복할 필요 언론의 윤리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강준만 지음. <학인사> 6천원

◇러시아 문학의 이해...85년에 창설된 한국출판사 학회가 90년과 91년에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았다. 석영중의 지음. <민들레> 6천원

◇새로 나온 책

◇YS는 못말려...우리나라 최초로 현지 대통령을 소재로 엮은 본격적인 정치 풍자극. 그동안 구절돼 온 정치유머에서 한걸음 벗어난 새로운 정치 패러디의 장르 확립과 함께 최근의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에 이르는 민간한 시대 분위기를 담고 있다. <나래미디어> 4천원

◇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 1, 2...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어온 철학에서 사상의 원수를 꺼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독자적인 인간관계 철학을 음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도서출판사> 6천원

◇권력파 이론...이 책은 한국 언론이 정치적 중립을 초래한 주범임을 고발하며 양비론을 통한 정치허무주의의 조장과 교묘한 편파 왜곡보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회복할 필요 언론의 윤리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강준만 지음. <학인사> 6천원

◇러시아 문학의 이해...85년에 창설된 한국출판사 학회가 90년과 91년에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았다. 석영중의 지음. <민들레> 6천원

◇새로 나온 책

◇YS는 못말려...우리나라 최초로 현지 대통령을 소재로 엮은 본격적인 정치 풍자극. 그동안 구절돼 온 정치유머에서 한걸음 벗어난 새로운 정치 패러디의 장르 확립과 함께 최근의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에 이르는 민간한 시대 분위기를 담고 있다. <나래미디어> 4천원

◇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 1, 2...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어온 철학에서 사상의 원수를 꺼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독자적인 인간관계 철학을 음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도서출판사> 6천원

◇권력파 이론...이 책은 한국 언론이 정치적 중립을 초래한 주범임을 고발하며 양비론을 통한 정치허무주의의 조장과 교묘한 편파 왜곡보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회복할 필요 언론의 윤리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강준만 지음. <학인사> 6천원

◇러시아 문학의 이해...85년에 창설된 한국출판사 학회가 90년과 91년에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았다. 석영중의 지음. <민들레> 6천원

◇새로 나온 책

◇YS는 못말려...우리나라 최초로 현지 대통령을 소재로 엮은 본격적인 정치 풍자극. 그동안 구절돼 온 정치유머에서 한걸음 벗어난 새로운 정치 패러디의 장르 확립과 함께 최근의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에 이르는 민간한 시대 분위기를 담고 있다. <나래미디어> 4천원

◇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 1, 2...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어온 철학에서 사상의 원수를 꺼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독자적인 인간관계 철학을 음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도서출판사> 6천원

◇권력파 이론...이 책은 한국 언론이 정치적 중립을 초래한 주범임을 고발하며 양비론을 통한 정치허무주의의 조장과 교묘한 편파 왜곡보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회복할 필요 언론의 윤리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강준만 지음. <학인사> 6천원

◇러시아 문학의 이해...85년에 창설된 한국출판사 학회가 90년과 91년에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았다. 석영중의 지음. <민들레> 6천원

◇새로 나온 책

◇YS는 못말려...우리나라 최초로 현지 대통령을 소재로 엮은 본격적인 정치 풍자극. 그동안 구절돼 온 정치유머에서 한걸음 벗어난 새로운 정치 패러디의 장르 확립과 함께 최근의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에 이르는 민간한 시대 분위기를 담고 있다. <나래미디어> 4천원

◇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 1, 2...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어온 철학에서 사상의 원수를 꺼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독자적인 인간관계 철학을 음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도서출판사> 6천원

동국

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년의 김종태 대학 역사지리학과 역사학과 학생들은 '범청학원'의 결성과 더불어 더 세차게 뚫어오르는 우리의 통일열기를 한 데 모아서 이음조각 알수 없었던 남녘의 나의 학우 나의 형제들에게 뜨겁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지교류제안은 우리 과 학생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류제안을 통하여 '나'를 알고 '나'를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연합체 '범청학원'을 강화하고 그것을 95년 통일의 영마루로 한걸음 한걸음 떠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매결연' 문제는 앞으로 범청학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그 계기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학우들의 질문에 대답을 드립니다.

—대학 입학 문제

여기 복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시기가 오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입학을 위한 예비시험을 치른다. 여기에서 합격된 학생들은 자기 지방에 따라 해당 대학에 가서 입학시험을 치고 입학한다. 제대군인들과 현직에서 로동하던 사람들도 요구에 따라 예비시험과 입학시험을 치고 1년간의 준비교육을 걸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적은 2-3월내에 공개되며 철저히 성적에 따라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대학 소개

우리 대학의 정확한 명칭은 '김종태 대학'입니다. 대학은 해주시 사미동에 자리잡고있는데 앞으로는 아름다운 옥계천이 흐르

“48년의 분단이 차이를 가져왔지만, 근본적인 공통성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 광선교와 정자들이 건설되어 풍치를 두고 있습니다. 학부들로서는 김일성정치혁명사학부, 역사지리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생물학과, 어문학부, 외문학부, 체육학과, 음악미술학과 등이 있습니다. 역사지리학과에서 역사학과 지리학과가 있습니다.

역사학과에서는 전공과목으로서 조선사와 세계사를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로 나누어 배워주며 이외에 기초과목과 공통과목도 배워줍니다. 대학에서는 오전중에 90분씩 세 강의를 하며 토요일에는 두 강의를 하고 일요일과 명절은 휴식합니다. 학기, 학년말, 시험과 졸업시험이 있으며 여러 계기에 조직되는 학습경연도 있습니다.

과외시간에는 학술 및 예술 소조활동에 참가하거나 오락을 즐기기도 하며 등산도 진행합니다. —졸업후 진로문제

대학을 졸업하면 각자의 희망에 따르는 원칙에서 주로 고등학교 교원으로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연구원 연구사나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원로로도 배치됩니다.

—분열로 인한 북과 남의 문화의 이질성에 대한 견해

거의 반세기라는 우리 민족의 분단은 물론 북과 남의 문화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북녘에서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원칙'과 '북고주의와 허무주의를 다같이 반대하는 원칙'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철저하게 민족적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난날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무원칙하게 되살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북의 문화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달린 삼키고 쓰면 뽕은 원칙"에서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문화는 명실공히 "우리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원래 민족성이 강한 인민이며 따라서 48년의 기나긴 분단사도 그 근본적 공통성만은 없애버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학우들의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서 편지교류가 아니라 '인파'와 '귀와 눈으로' 한문이 된 우리 자신을 반이간해 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 싸워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통일염원 48년 9월 24일

김종태대학 역사지리학과 역사학과 학우일동 드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

우리/대학-북/한/김/중/태/대/대/학/간 학생편지 교류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

“분교” 역사교육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북한 김중태대학 학생들과의 편지교류가 결실을 거두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런' 교류가 각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공개가 보류됐던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편집자>